

진리를 살다

문제는 많은 사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습관적으로 더 냉정하게는 아무 정성 없이, 타성에 젖어, 무미건조하게, 1년 365일 하나의 양식만으로 변화도 없이 마냥 읽어 내려간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딴 곳을 보거나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인사가 되겠습니까? 사제가 이러한 인사의 의미를 살리려면 미사의 인사말 정도는 암기하여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도 않고 인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또한 주어진 세 가지 양식만이라도 변화를 주어 사용한다면, 더 나아가서 전례시기에 따라 다양한 성경의 인사말로, 예를 들면 사순시기에는 “올바른 회개를 선사하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미구에 오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부활시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등으로 변화를 준다면 신자들의 눈과 귀는 번쩍 뜨일 것이며 아주 자연스레 “또한 사제와 함께” 하고 응답할 것입니다.

공의회는 우리가 성체의 표지 외에도 예수님이 현존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외적 표지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현하는 외적 표지들이 빵과 포도주 뿐이 아니라, 여기 모인 공동체도 바로 그 표지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사에 모일 때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전례 행위, 더욱 명확히 말한다면 미사 전례 안에서보다 더 확실하게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의 혼란에서 빠져나와 교회에 오며 아마도 그 중 대부분이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인사와 인도

됩니다. 이들은 성당에 들어와서 우선 제대와 감실을 바라보며 절을 하고 현존하시는 주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진정 내적으로 집중하고 모여 있어야 하고 주님 친히 우리 중에 현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말을 할 때 사제는 두 팔을 펼치는데 이는 포용하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몸짓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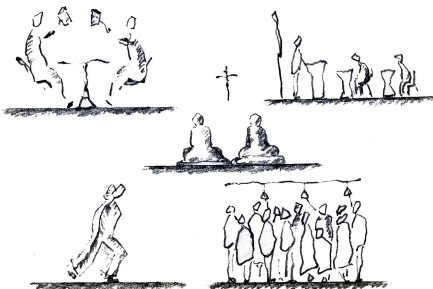
● 미사 인도 및 안내

인사에 이어 그날 미사전례의 주제를 알려주는 짧은 인도가 따라 올 수 있습니다.(총지침 50항) 이 인도 부분은 특히 주일, 축일, 성인 축일, 기념일 등과 세례, 혼인, 장례 등의 예식 미사, 특별한 행사 미사 등에 필요할 뿐 아니라, 사목적으로 대단히 유익합니다. 인도하는 말들이 첫 강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대부분의 본당에서는 미사 시작 때 친절하게도 그 미사의 지향을 알려 주는데, 미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잔치이자 제사입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미사를 자기들 미사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교회의 오랜 관습에 따라 미사 예물을 사제에게 바치고 개별 지향을 신청할 수 있고, 사제는 그 지향에 따라 미사 중에 개별적으로 기도합니다. 미사 예물이란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는 사제에게 감사의 표시로 바치는 감사 예물입니다. 따라서 사제가 미사 지향을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주보나 지향판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미사예물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사목자가 많습니다. 하느님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제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과잉 친절을 베풀고 신자들은 오해에 근거하여 무리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성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회원 회장
『대구대교구 '빛' 집지 발췌』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느끼나요.

보이지는 않겠지만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이 가는
모든 곳에서
늘 곁에 있습니다.

느끼나요.

상화이야기

안드레이와 이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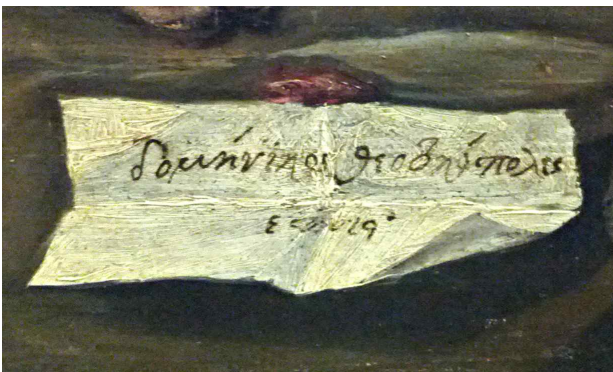
엘그레코(1541-1614)
1595년 작
캔버스 위 유화, 167 X 113 cm
프리도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

엘그레코라는 뜻은 스페인어로 ‘그리스인,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으로, 본명은 Doménikos Theotokópoulos라고 한다. 서명할 때는 자신의 고향을 뜻하는 ‘크레타 출신의’라는 단어를 종종 첨부하기도 했다. 엘그레코가 태어날 당시 그리스의 크레타 섬은 베니스 섬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미술가들이 베니스에서 공부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다. 엘그레코는 베니스에서 르네상스 후기의 매너리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그가 후에 스페인의 톨레도에 정착하여 활동할 때, 그의 창작 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의 그림은 한눈에 봐도, 우리에게 익숙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그림과는 다르다. 그의 그림은 소수의 강렬한 색깔을 사용하되, 다소 과장되게, 길쭉길쭉하게 그려진 인물들은 사실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스산하면서도 예상롭지 않은 분위기의 배경은, 그림에 마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다.

이 그림에서 엘 그레코는 자신이 순교한 십자가를 들고 있는 안드레아 성인과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성인을 그려냈는데, 이 두 분은 깊은 대화에 빠져 있는 듯하며, 이 그림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목상을 통해 하느님과의 진정하고 엄숙한 대화를 독려하는 것이리라. 오른쪽에 작은 종이에 작가의 서명이 그려져 있다.

김은혜(월리사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7주일: 상용 김창원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때: 2월 19일(주일) 11:00
- 국장회의
 때·곳: 2월 21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김호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0일(월) 18:30, 성루카 성당

◆ 3사관학교 졸업미사

 때·곳: 2월 22일(수) 19:00, 성바실리오 성당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